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원중 제21주일
제36권 39호(다해) 2016년 8월21일

[묵상]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좁은 문' 이라 함은,
내 영혼이 욕심과 자만과 교만으로,
미움이란 비계덩이로 살찌워져 있기 때문이다.

내 자신을 비워 내는 다이어트,
내 자신을 무(無)화 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

우리는 신앙의 단식을 실시해야 한다.
탐욕의 찌꺼기를 배설하고,
죽음의 독소를 체외로 발산시키며,
신과 일치하며 이웃과 친교를 나누는데 장애 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

우리는 가볍고도 날씬한 존재의 모습으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난과, 비움과, 겸손의 연습을 해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 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 780-2789

미사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 (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2:3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출발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이순자 레지나, 이용식 베드로, 유재천 & 이귀덕마리아 & 유금중 프란치스코 & 유영일 바오로
	(생)시무궁 루이스 & 장서영 로사, 최중수 로사 & 유정연 레오나 & 유영재 요한 & 유보나 보나 & 고화혜 & 유상인 & 유선미 올리비아
주일 낮 미사	(연)이정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서성용 베드로, 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비아, 김차옥 요셉 & 김복남 마리아, 강태람, 강신봉 안드레아, 박영식, 신현태 & 이효희 마리아, 김 리드
	(생)박영식 안드레, 박정미 클라라, 황운재 베드로, 필리 & 에딧트슈타인, 조성운 클라라 & 박재홍 & 박정현 어거스틴, 윤선희 로사 & 정광미 프란체스카, 손석 스테파노, 류현욱 피아, 김형준 요한, 송기분 수산나, 황인중 성실 & 박명순 안나가정, 이형삼 & 이혜숙 & 송종두 미카엘 & 남명자 테레사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 (Isaiah) 66,18-21

화답송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겨레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12,5-7.11-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갈 수 없다.○

복음 루카 (Luke) 13,22-30

영성체송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십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토요 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88	188	187
봉헌	261	261	268
성체	305	305	305
파견	187	187	215

한국 교회의 역사

제2부 교회의 진로와 민족의 수난

4. 천주교와 타 사상의 만남(1876-1945년)

4-2. 천주교와 개신교

이러한 과정에서 개신교 선교 초기에 천주교와 개신교는 서로 대립하게 된다. 그리고 개신교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개신교와 천주교가 서로 충돌하면서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다. 1895년 평양에서는 성당의 대지 문제 때문에 자그마한 충돌이 일어났으며, 1901년에는 황해도 지역에서 천주교와 개신교 사이에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였다. 해서 교안(海西教案)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정부의 중재로 마무리되긴 하였으나 이후 천주교와 개신교는 결코 원만한 사이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회의 공식적인 태도와는 달리, 식민지 시대 간도 지방(間島: 두만강과 압록강 건너편의 지역으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주하여 살던 곳)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들이 서로 협조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나 금융 회사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었으며, 독립운동도 서로 발을 맞추어 갔다. 교회 일치라는 차원에서 볼 때 당시 간도 지방의 신자들이 보여 준 모범은 매우 소중한 역사적 경험으로 평가 받는다.

4-3. 교회와 공산주의

식민지 시대 조선 사회에서는 3·1 운동 이후에도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독립을 위한 노력으로는 상해 임시 정부를 비롯한 민족주의 운동 세력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을 주목할 수 있다. 1925년 조선 공산당이 조직되어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 종교를 미신으로, 인민의 아편으로 간주하고 반종교적 견해를 피력하였다. 물론 공산주의의 종교에 대한 교조주의적 비판은 반제국주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3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통일 전선론이 제기됨에 따라 변화되어 갔다. 통일 전선론은 종교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며, 종교 기관이나 종교인들도 반제국주의 운동에 공산당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공산주의가 규정한 종교의 가치는 매우 제한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교황청은 사상적 측면에서 가톨릭과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한편 일본은 중국 침략을 합리화하려고 자신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는 방과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강력한 반공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제의 반공주의는 침략 정책을 호도하기 위한 방책의 일부였다.

한국 교회 역시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데 노력하였다. 교회는 책자를 통해 반공의 입장을 제시하는 한편, 교황의 반공주의적 교서들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공산주의의 각종 오류를 인간성에 반하는 것으로 단죄하였다.

<계속>

꿀찌가 된 첫째와 첫째가 된 꿀찌

“첫째가 꿀찌가 되고, 꿀찌가 첫째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군대에서는 논리도 합리도 없습니다. 한번은 동쪽으로 뛰고, 다시 서쪽으로 뛩니다. 동쪽으로 뛰다가 서쪽으로 뛰려면 꿀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꿀찌가 됩니다. 역전은 운동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를 제쳐두고 다른 민족들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니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제쳐두고 비그리스도인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한다면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네요. 더더욱 하느님 때문에 시집가는 일, 장가가는 일을 포기하고 성직자, 수도자가 되었는데, 하느님 나라 잔칫상에 들어갈 수 없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특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라는 특혜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살아가는 일, 하느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이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답게 살자’는 운동이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사제, 수도자로 불림을 받은 것은 자신의 구원 때문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 교회 공동체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교회의 구성원으로 선택된 것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좁은 문’을 말씀하십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과 취직하기 어려운 젊은이들,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해 본 사람들은 ‘좁은 문’의 뜻을 압니다.

장애와 질병을 가진 자녀를 돌보는 부모님들도 ‘좁은 문’을 잘 압니다. 함께 살고, 함께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그것을 위한 희생이 얼마나 ‘좁은 문’인지 선의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주님, 오늘은 테이아르 신부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주신 사람들 하나하나,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 고통을 겪는 사람,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진보와 하느님 나라의 도래를 믿고, 진리와 빛을 향해 열정적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인류 전체, 이 하루 동안 더욱 작아질 모든 것들, 오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들, 특히 첫째가 될 꿀찌와 꿀찌가 될 첫째들,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를 빕니다.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 천주교 원주교구장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범주 다니엘	송인선 안젤라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정인옥 아오수딩
제2독서자	정진옥 노엘	한경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토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유보나 보나	김교복 레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김금자 테레사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PV 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주일학교 방학기간 동안 조정되었던 학생미사가
9월 4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 미사 시간 : 7:30, 9:30, 11:00

◆ 본당 견진성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11일(주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슬리스주교님
- 견진 교육 :영성피정 이수자
(6월2일~6월5일, 신앙성숙과 채신을 위한 영성피정)
- 견진신청 마감 : 8월 28일(주일)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부스를 분양합니다.

- 9월 18일 본당의 날 행사에 각 단체별 부스를
(먹거리, 특산물, 음료 등등...) 접수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단체는 사무실에 신청하여주십시오.
- 문의: 박개순 도미니코 ☎(310) 997-7770

◆ 요셉회 8월모임

- 일시 : 오늘주일(21일) 11시미사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정기은 비오 ☎(310)780-2789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 교육

- 일시 : 9월 10일 오전 8시 30분~오후 5시
- 장소 : American Martyrs Catholic Church
624 15th Street, Manhattan Beach, CA 90266

◆ 배론 청년회 운영 자금 및 활동 예산 모금을 위한
펀드 레이징

- 일시 : 8월 28일 11시 미사후
- 팔빙수 : 1 개당 \$ 4, 3개 \$ 10

* 성모회에서는 배론 청년회를 지원하기 위해 친교자리점심을
봉사해드립니다. 이익금은 장차 본당을 젊어지고 나갈
배론 청년회의 운영자금으로 쓰여집니다.

◆ 청소년 분과 봉사자 교육

- 주제 : 2016-17년도 일정과 성당 봉사에 대하여..
 - 일시 : 8월 27일 오후 4시~6시 ●장소 : 강당
 - 대상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청소년 분과 봉사자와
봉사에 관심이 있으신 교우 분들
 - 신청마감 : 8월 21일 까지 (310) 692-8755
- * 간단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므로 꼭 사전 신청을 하여주세요.

◆ 2016-2017년도에 봉사할 교사를 모집합니다.

- 주일학교 : 초등부 교사 3 명
- 한국학교 : 초급 또는 중급 교사 1 명
- 밴드부 교사 1 명
- 학생 전례부 교사 1 명
- 문의: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 St. Margaret Mary Lomita Fair Volunteer 모집

St. Margaret Mary에서 주관하는 행사로써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인원의 봉사자가 필요한 큰 행사입니다.
행사 기간 중 시간이 허락되시는 교우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봉사 일정 및 시간 : 9월 09일 금요일 오후 5~11시
9월 10일 토요일 오전11~오후11시
9월 11일 일요일 오후12시~9시
 - 모집 인원 : 각 분야 별 00 명
- * 고등부는 Volunteer Certification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29회남가주 성령채신대회CD가 나왔습니다.

- 가격: \$20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310)780-0369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8월21일 : 친교 점심 나누기 없습니다.
- 8월28일 : 성모회 주최 배론 청년회 기금마련(비빔밥 \$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미순 김선영 김성택 김여순 김원호 김재영 김정엽 김찬구 노혜숙 민순섬 반비오 송영미 윤희동 이미예 이인석 이일길 이채용 이정분 임 순 전동훈 정규숙 조준제 최길주 최수복 최수지 최원석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홍인표 황인종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4,310
주일미사헌금 :\$2,235		
성전헌금	장미순 김정엽 김찬구 노혜숙 반비오 윤희동 이미예 이인석 이일길 이정분 임 순 정규숙 조준제 최길주 최수지 최원석 한장환 한창주 한혁수 황인종 황지영 송마이클	합계 : \$1,870
		감사헌금(신동훈): \$100

◆백삼위 한국어 시험 준비반 개강

- 주체 : 백삼위 한국학교
- 기간 : 8월 14일~8월 28일 매주 일요일 (총 3 회)
오전10시30분~오후12시30분
- 문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213)700-9399

◆페루 선교에 보낼 학용품 모으기

- 페루의 어린이들에게 기부하려고 학용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비치된 박스에 도네이션 해주세요.
- 가방, 공책, 필기도구, 미술도구 등 (새것 또는 깨끗한 것)
 - 문의 : 박현희 프란치스코 ☎(310)592-4739

남가주 소식

◆제 17차 '청실홍실' 행사 안내

- 일시 : 2016년 9월 11일(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 장소 : 엘에이 옥스포드 호텔
(주소 : 745 S. Oxford Ave, L.A.)
- 참석자 - 결혼적령기를 맞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자녀가 원하면 자녀와 함께, 혹은 자녀 혼자 참석)
- 회비(식대포함) - \$100 (두 사람\$150, 세 사람 \$200)
- 주관 : 남가주 천주교 한인종신부제협의회,
'청실홍실' 운동 본부
- 연락처 : 이메일<chungsilhongsil@gmail.com>
☎(714)530-3111
- 결혼이 성사되더라도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다.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속에서 하는 9개월간의 영신수련

- 기간 : 2016년 9월~2017년6월
- 주관 : 예수회 로올라 영성센터
- 회비 : \$70(교재비 별도)
- Loyola Institute of Spirituality
480 S. Batavia. Orange, CA 92868
- 문의 : 전 아네스(213) 507-1144

◆청년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 생활 세미나

KYCR New Life in the Holy Spirit Seminar

- 일시: 9/2 (Fri) 4pm - 9/4 (Sun) 4pm (Labor Day Weekend)
- 장소: 꽃동네 Kkottongnae Retreat Center
37885 Highway 79 S. Temecula, Ca 92592
- 회비 : \$150
- Contact: Jeane Yoon (한국어/Eng) 562-676-7933,
Esther Pak (Eng) 562-991-3489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제 메히틸다 713-4926	유철희 바오로 8/10(수) 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패트릭 781-0787	장수영 패트릭 8/13(토) 오후6시30분 성당
	3	윤미애 안나 560-7120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인식 토마스 8/20(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김인성 스테파노 8/13(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박명순 안나 8/14(일)11시미사후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김상용 임마누엘 8/19(금)오후7시30분 유아실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임미숙 로사 8/9(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황지영 안젤라 8/21(일) 오후 6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윤희동 안토니오 8/14(일) 오전11시De Portola Park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남해나 베네딕다 8/12(금) 오후 7시 성당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유지아 클라라 8/20(일)엘림온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신혜정 로사 8/13(토) 오전11시 성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이귀란 아네스 8/9(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요셉 회	미사후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사목회의	1시
------	----

떼제 공동체를 추억하며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 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다시 한 번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고 싶습니다. 스물세 살 때 혼자 6개월 정도 유럽 배낭여행을 했는데, 그때 떼제 공동체를 거쳐 산티아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제 인생의 화양연화는 과거에 있지도, 미래에 있지도 않고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지만, 그럼에도 떼제 공동체에 머물고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그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사실 여행을 떠날 당시 제 마음은 참 황폐했습니다. 졸업을 한 학기 앞두고 휴학을 해 일 년 정도 아르바이트로 돈을 모아 떠난 여행이었는데, 전혀 신이 나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뭔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보다 그저 한국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되도록 멀리, 되도록 오래.

취업 준비생이었던 저는 저 자신이 한국 사회에는 영 적합하지 않은 인간 같아 보였습니다. 모든 게 다 경쟁인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에 저는 지나치게 게으르고, 굼뚱했습니다.

원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평생 좋아하는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였습니다. 굶어 죽기 딱 좋은 인간형인 셈이지요. 지금도 딱히 경쟁에 최적화된 인간으로 거듭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떼제에서 보낸 시간이 저를 변화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1940년 로제 수사가 프랑스의 '떼제'라는 작은 마을에 설립한 이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머물 수 있습니다. 공동 기도 시간이 있고 세계 각국에서 모인 청년들과의 토론 시간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주로 '침묵의 숲'이라 불리는(그곳에서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곳에 드러누워 구름이 모양을 바꾸며 천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다 낮잠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러다 심심해지면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축 떼를 구경하고, 어느 집 돌담에 기대 햇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삼 주 정도의 시간을 보내다가 떠날 시간이 가까워 오자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활기를 띠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하늘이 참 파랗구나, 구름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아름답구나, 햇살은, 바람은, 그리고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하고, 마치 그것을 처음 알게 된 사람처럼 설렘했습니다. 라틴어로 된 떼제 성가를 수백 명의 청년이 합창하는 걸 듣고 있을 때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떼제 이후로 저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시 그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골칫거리로부터 거리를 두고 떠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용기, 다시 문제의 핵심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주곤 합니다.

◆ 이세라 진이 아가다 / KBS 기상캐스터

[길을 찾는 그대에게]

집을 방문한 지인이 "성당 가니까 안 믿겠지만 우산 걸이를 현관에 놓아두면 복이 나간다"는 말이 있으니 자신도 믿는 건 아니지만 "치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랴 상대가 편하기를 바라면서 옮겼는데, 혹시 제가 미신을 믿는 것처럼 보였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 "참 잘했어요!"라고 새겨진 도장이라도 꽂 찍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인으로서 믿음이 없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이야말로 "되도록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1코린 9, 19) 바오로 사도의 심정이라 싶으니까요. 그럼에도 생각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상대를 위한 배려가 어느 날 문득, "우산꽃이를 치웠더니 나쁜 일이 액땀이 될 것"같은 느낌으로 오영되는 일이 없도록, 나아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된 것에 만족하는 느긋한 마음을 단속하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각을 갖는 것 못지않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의도일지라도 복음적 관점에서 꾸준히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솔직히 자신의 행위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의도임을 밝히도록 하세요. 허술한 우리네 마음은 입술로 시인할 때 더 확고해집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더더욱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는 모범 신앙을 살아내기 바라며 더 센 힘을 갖추길 권해 드립니다.

◆ 장재봉 신부 / 선교사목국장

[교리상식]

영성체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 성체는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보존하고 새롭게 하며 성장시키는 양식입니다. 또한 영성체는 주님과 이루는 친교와 교회와 일치를 증대시키고 소 죄를 없애 주며 대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 「미사 전례」

키프로스의 첫 영세자,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

안티오키아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르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메온, 키레네 사람 루키오스, 헤로데 영주의 어린 시절 친구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그중에 바르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견됩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러자 안티오키아 교회에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여 파견했습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3,1-3

하느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르나바와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들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셀레우키아로 내려간 다음,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스에 이르러 유대인들의 여러 회당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조수로 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난 가짜 예언자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3,4-6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은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행원인 마술사 엘리마스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들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때에 바오로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가득 차 그를 유심히 보며 “온갖 사기와 온갖 기만으로 충만한 자, 악마의 자식, 모든 정의의 원수! 당신은 언제까지 주님의 바른길을 왜곡시킬 셈이오?”라고 야단쳤습니다. 그 결과 어떤일이 벌어지고 총독은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사도행전 13,7-12

키프로스는 본래 바르나바의 고향이었습니다. 바르나바는 일찍이 키프로스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판 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신자들을 위해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세르기우스 바오로 총독은 영리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바르나바와 사울을 관저로 불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로마의 고급 관리였고, 재산도 많아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총독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광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감동을 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팔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이르셨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와 ()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사도 13,2)

이제 보시오, 주님의 ()이 당신 위에 놓여 있소. 당신은 ()이 멀어 한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러자 즉시 짙은 어둠이 그를 덮쳐, 그는 사망을 더듬으며 ()을 잡아 이끌어 줄 사람을 찾았다(사도 13,11)

우리들에게도 읽이 있어요.

냉장고에 오래 두었던 콩나물 봉지를 버리려고 보니 콩나물에 읽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콩나물에도 읽이 있었습니다.
모든 씨앗은 읽을 품고 있는 것을.
데쳐먹고, 무쳐먹고, 국 끓여 먹고,
그렇게 먹기에 바빠서 그 동안 읽고 있었습니다.
읽이 핀 콩나물 창가에 두고
곧 올라올지 모를 내 안의 읽을 생각합니다.

-이영 아네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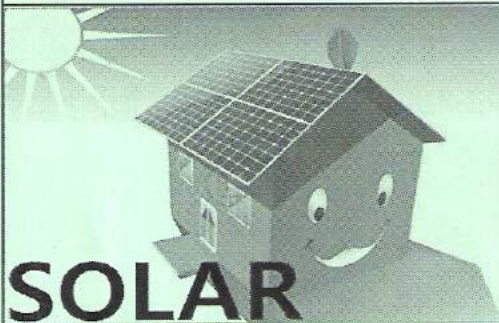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422 LA, CA 90006
☎(213)480-0911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묘지매매
묘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AmGreen Solar / LED
윤 철 아오스딩 310-321-8600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용자 / 채용자 / 옴 에퀴티 라인
Tax 보고서 없이가능(30년 고정)
Direct Lender
이인석 비오(213)393-5572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열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켈바-

TCP18894-P 주정부 허가

베스트 공항 택시 LA공항전문

24 / 7 미니 밴 항시 대기

TEL)310-516-8282

조셉 홍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R1124 / CB96588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찬.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한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CA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보나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StateFarm™

Heather Chong (정혜경) Lic#0I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